

청강 권해옥 종노(宗老)의 서세를 애도함



청강靑岡 권해옥 權海玉 族형族兄이 2025년 10월 10일 석양에 노환 중 향 91년으로 역책易簣하였다. 만세萬歲 수일전 공이 시작한 합천 출신 안동 권문인 모임 경친회京親會에 나와 ‘내가 죽으면 합천의원 동우회와 안동권씨합천종친회合葬으로 치러주고 지역신문에 부고해 달라’ 하면서 족말族末에게 문안을 주었다.

그리고 일후 翌觀測館의 승강기에서 낙상落傷하여 인근 중앙대병원에 입원 후 연관捐館하였다. 4일장의 발인례는 10월 13일 매상味爽에 거행되어 출상은 고향 합천의 일해공원日海公園을 향 발하고, 거기에서 유언대로 합천지역의 원동우회와 안동권씨합천종친회 집전의 장례식이 봉행된 다음, 장행葬行은 합천군 초계면 선영하로 속행하여 안장이 이루어졌다. 오호嗚呼, 인사人事가 해로무상薤露無常이라 하나 어찌 이를 믿을 것인가.

청강은 1935년 합천군 초계면에서 태어나 초계중학, 건국대 법대학을 졸업하여, 1967년 부산 국제신보 기사를 시작으로, 사계의 중진이 되어서는 문화방송의 감사역을 지내고 정계에 진출하여 13·14대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에 정진하였다. 이후 대한주택공사 사장,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 국민의 힘 상임고문을 역임하고 체귀歸鄕 후에는 본종 안동권씨의 대종회장에 선임되었다.

13·14 양대 국회의원으로서는 출신지역구 발전에 헌신하면서 2008년 10월 합천군의원동우회를 창립하여 15년간 회장직을 겸대하고 합천공설운동장 건설, 읍곡읍북지구 농공단지 조성, 진주-합

천-대구간 4차선도로 확장 등의 지역민 숙원사업을 성취시키며, 1988년 12월의 합천댐 준공, 94년 11월 합천항일의병발상지 기념관 건립과 합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건립, 95년 12월 합천군문화예술관 건립, 98년의 거창사건희생자 추모위령제 등의 행사를 주도하였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7·18 양대의 본종 대종회장에 재임 중에는 매년 춘추양사春秋兩事로 봉행되는 시아조始亞祖 대전大奠을 도유사로서 집전執典하며, 능동성역陵洞聖域 하에 평창·학림平昌鶴林 양공의 불망비不忘碑를 세우고 진입로에 표지석標識石을 더하였다. 충장공 권율도원수의 국가표준영정 제작을 성사시키고 행주산성의 대첩제를 방국邦國의 행사로 격상시키고자 백방심로百方心勞한 것도 그 미시公적微視功績의 일편一片이다.

청강 족형은 같은 삼괴당三槐堂 현조의 운예雲裔로서 일상에 사가私家和 불초로 더불어 연분緣分이 얹지 않아 처가와도 서로 과갈지간瓜葛之間이고 소시부터 불초를 욱이이 권애眷愛하며, 비루 선고先考와 백사伯舍의 초종初終에 호상護喪하였다. 작일昨일까지 매일 통화로 안부하던 어음이 산명山鳴만 같은데 구천九泉에 정녕 차서기 있음인가, 별사別辭를 조종雕蟲하는 주안醺眠에 문혈紋血이 붙어不已이다. 연이나 족형은 만세전 1999년 자전自傳 ‘政治의 現場’과 2021년 회고록 ‘政治와 人生’을 출간하였는데 두 저술에 일대기와 사적事跡이 집약되어 있다. 거듭 해아리건대 낙성落星을 알리는 천아성天鵝聲이 망연히 울릴 때 인사가 어찌 이리 허망한 것인가. 망백望百을 두린 이슬을 문득 황황히 떠나신 영현英顯은 영결이 없는 저승의 명복冥福을 길이 누리리라.

족제族權 權해조 곡만哭挽

권태은, 권훈중 후손 유림 서예대전 대상,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청 동라관에서 지난 10월 22일에 열린 제16회 경상북도 유림 서예대전에서 권태은(權泰殷, 좌운공파 33世) 후손이 영예의 대상(大賞, 경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경상북도 의회의장상)은 퇴계 선생 시詩를 출품한 권훈중(權訓重) 후손이 받았다.

권태은 후손은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시詩 “踏雪夜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을 초서체로 써 영예의 대상을, 권훈중 후손은 퇴계 선생 시詩 양학養鶴으로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경상북도 향교재단이 붓글씨로 이어지는 선비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주최하는 이번 유림 서예전에는 천여 명의 서예인들이 문인화와 한글 한문 작품을 출품, 대상과 최우수상, 초대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학생부 대상은 구미 초등학교 3학년 김윤형군이 수상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근당勤堂 권태은 작가는 지난 40년 간의 서예 작가 활동을 통해 도전과 국내외 서예전에서 대상과 초대 작가상 등을 20여 차례 수상한 경력을 가진 우리나라 중견 서예인으로 휘호 봉사 등 서예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자원 봉사 활동가이다. 권오신 좌운공파회장

동정

▲ 지드래곤 권지용(추밀공파, 35世)교수가 지난 23일 한류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최연소로 옥

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그는 수훈 브로치와 훈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며 “한동안 이 브로치 달고 다녀야겠다”고 웃음을 보였다. 이에 한 스타페가 “2세에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지드래곤은 “맞다. 드디어 추밀공파 35대에서 하나 뒀다”며 유쾌하게 답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정부 포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다.

▲ 권종택 보림출판사 대표가 10월 13일 ‘제39회 책의 날’을 맞아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권종택 대표는 1976년 보림출판사를 설립한 후 국내 단행본 그림

책 시장이 정착되지 않았던 1970년대에 다양한 국내의 그림책을 출간해 단행본 그림책 시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50년간 국내외의 그림책을 기획·출간하며 한국 그림책 시장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림책의 선구자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에서 주관한다.

▲ 권원택씨가 지난 2일 월성원자력본부 신입 본부장(57)에 취임했다. 1968년생인 권원택 본부장은 1993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30여년 동안 원자력 분야

에 몸을 담은 우너자력 전문가이다. 신입 본부장은 월성교육훈련센터 교수, 발전처 발전운영실장, 원전사후관리처장 등을 거치며 현장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 권모세 더헤브리조트 회장이 ‘2025 제13회 한반도통일공헌대상’(경제산업 부문)을 받았다. 권모세 회장은 통일을 위한 민간 경제 협력모델을 제시해왔고 실천 방안도 꾸준히 모색해온 기업가로 주목 받아왔다. 특히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윤리적 경영과 선교적 기업의 비전을 실현하면서 기독교 기업 간 연대와 국제적 네

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일경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민간 통일 기반 조성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 권동락 대구가톨릭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팀(문용석 대구가톨릭대병원 해부학교실 교수, 이윤진 순천향대병원 생화학교실 교수)이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권 교수 연구팀은 ‘사인파형 미세전류 치료의 근육 재생 효과에 대한 세포 및 동물실험 연구’라는 논문으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 초허당 권오춘 종신 석좌교수가 모교인 동국대에 2005년부터 20년간 누적 113억 원을 기부했다. 동국대는 권오춘 종신 석좌교수가 기부한 ‘초허당 장학’ 수여식을 지난 27일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은 3학년에 재학 중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와 함께 1인당 100만 원씩 총 21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 권요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부산 유엔 기념공원 호주 참전기념비와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호주는 6·25전쟁 당시 육·해·공군을 파견한 국가로 총 1만7164명이 참전하여 340명이 전사하고 121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584명이 희생되었다. 권 장관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오늘날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호주를 비롯한 22개 유엔 참전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정부는 유엔 참전국과 다양한 우호협력은 물론 참전영웅들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호 대종회 수석부회장 회고록 출판기념회 개최



권영호 대종회 수석 부회장은 지난 7월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회고록 “도전과 열정 철강 인생 50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올해 팔순에 접어든 권영호 수석 부회장이 산수(傘壽)연을 겸하여 개최한 출판기념회에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권길상(사)한국성씨연합 총재를 비롯하여 재부경남향우연합회, 각 기업체 사장단과 안

동 권씨 일족은 물론 출신 학교별 동창생, 산청군 향리 주민, 가족 친지 등 170여 명이 참석하여 회고록 출판과 산수연을 함께 축하하였다.

이날 출판 기념회는 내빈 소개, 저자 약력 소개 및 인사에 이어 허남식 시장·양재생 회장·권길상 총재의 회고록 서평 및 축사, 그리고 권정희 부녀회장의 축하 꽃다발 증정과 경남향우연합회가 마련한 기념패 전달이 있었다.

권영호 수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비록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나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딛고 이룩해 놓

은 작은 보람과 성취를 이 책에 담아 놓았다.”며 “결코 혼자서는 이루지 못할 일을, 저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여기 모인 여러분과 함께 일군 성취이기에 그 기쁨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셨다.”며 재삼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회고록을 낸 권영호 회장은 어린 나이에 일찍 객지로 나와 맨주먹으로 대한철강주식회사를 일구어 부산 중견기업으로 우뚝 세웠으며, 베트남에 자회사인 대한비나를 설립해 해외 진출에도 성공한 기업인이다. 또한 경남향우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안동권씨 전국종친회장 협의회



장 등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등 여러 단체에서도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권재영

2025년 始祖 太師公 秋享祭 案内

2025년도(權紀 1096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일원)

○ 연락처 : 서울 02-2695-2483~4/안동 054-854-2256

※ 추향제에 참제하는 족친 여러분께서는 당일 입재하여 참제하시기 바랍니다.

※ 추향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종중이나 단체의 제수성금은 향사 전용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301-0268-6817-11, 예금주: 안동권씨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영창